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성폭력 사건 가해자 어지(차라)는 한국레즈비언상담소가 결정한 징계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한국레즈비언상담소와 서약했습니다. 아래의 사과문 공개는 서약서 5항 '어지(차라)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 및 상담소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하며,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이를 피해자들과 협의하여 상담소 홈페이지 및 상담소 회원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권단체 메일링 등에 공개할 수 있다.'에 따른 것입니다.

※ 1.~4. 피해자 A, B, C, D에 대한 사과문은 생략합니다.

※ '5.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 드리는 사과문'에서 피해자 A, B, C, D의 신상이 드러나는 부분은 생략합니다.

※ 어지(차라)가 파란색으로 작성한 부분은 주요 수정 부분입니다.

2012년 11월 1일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사과문(2차 수정)

작성: 2012년 10월 5일, 어지(차라)

1.~4. 피해자 A, B, C, D에 대한 사과문: 생략.

5.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 드리는 사과문

상담소 회원 4명에게 저는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받았습니다. 그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저지른 행위는 성폭력이 맞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에게는 원하지 않는 연락을 취하는 등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스킨십을 행하여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에게는 밀폐된 장소에서 성폭력으로 가했고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과를 시도하였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에게는 성폭력 가함과 더불어 불평등한 소통 방식을 거듭하였습니다. 위에 언급된 행동과 지적받은 문제제기는 사실입니다. 저의 행동은 명백한 성폭력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부터 네 번째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제가 저의 잘못과 가해 행위에 대해서 저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문제화하려고 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저는 1년 반 동안 상담소 활동가, 인권 활동가, 성소수자 활동가로 자처하며 활동했습니다. 이 같은 위선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합니다. 저로 인해 상담소 안에서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저로 인해 부정적 경험을 하셨을지요.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의 사태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합니다.

저는 상담소가 지향하는 반성폭력이란 가치에 동의하며 상담소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담 활

동가로서 내담자분들을 만나면서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가했던 행동들은 제가 동의했던 가치와 지향점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활동가로서 행했던 행동과 상담소 회원 및 활동가 사이에서 제가 했던 행동은 매우 모순적이었습니다. 저의 이 같은 행동들로 인하여 활동가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 점에 대해 상담소 활동가, 회원분들 그리고 내담자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전 이번 사건을 마주하고 저의 행동들에 대해 돌아보면서 비단 제가 상담소에서 벌인 행동 뿐 아니라 저의 지난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여성주의 활동가로 자임하고, 레즈비언으로 정체화 하였으며, 성소수자 활동가로 자처하면서 보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는 제가 고질적으로 겪었던 패턴, 즉 타인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의 표현을 스킨십 등으로 먼저 시도하면서 **성폭력 가해를 반복하였던** 저의 방식이 가진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 같은 잘못된 방식이 타인을 성적으로 통제하거나 억압하게 되는 폭력의 경험을 빈번하게 낳았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저의 잘못된 많은 언행으로 인해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동안 저를 동료 활동가로 함께 하기 위해 들였던 상담소 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저의 사건이 상담소 내부에 공개되고 드러나게 과정에서 그 동안 짧지 않은 1년 반이란 시간동안 저와 얼굴을 보며 활동했던 수많은 활동가와 회원 분들이 얼마나 큰 배신감과 실망감, 그리고 안타까움을 느끼셨을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이 시점 이후로 제가 인권 활동가로서 얼마나 부적격인 사람인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하며 모든 인권 활동, 성소수자 활동, 여성주의 활동을 멈추고 제 행동을 교정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또한 가해자로서 제가 행했던 행동들이 가진 문제의 심각성을 뇌우치고 시정하기 위한 가해자 교육을 받는 등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의 수많은 불찰과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상담소 많은 분들과 내담자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표하며 부족한 사과문을 마칩니다.